ROLEX

롤렉스의 골드

찬란함의 원천

롤렉스 시계에 사용되는 골드의 뛰어난 광채는 롤렉스 자체 주조시설에서 1,000°C 이상의 고온으로 귀금속을 용해시켜 생산하는 고순도 합금에서 비롯된다. 엄격한 품질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는 18캐럿 옐로우, 화이트, 에버로즈Everose 골드는 롤렉스 시계 케이스와 브레슬릿을 우아하게 빛내준다.

품격 높은 가치와 내구성을 겸비한 전설적인 귀금속인 골드는 완벽함, 순수함, 영원한 광채를 상징한다. 최고의 고귀함을 갖춘 골드는 오이스터 Oyster 컬렉션의 다양한 시계들을 찬란하게 빛내준다.

높은 순도의 24 캐럿 골드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합금 처리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높여야 한다. 그 결과 시계 제조에 최적화된 최고의 합금인 순도 750‰(천분율)의 18 캐럿 골드가 탄생했다. 은, 구리 또는 기타 금속의 첨가 비율에 따라 옐로우, 핑크, 화이트 등 다양한 색상의 골드를 얻을 수 있다.

합금의 품질과 속성은 합금 공정의 철저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롤렉스는 특별한 성분을 갖춘 최고 품질의 골드를 얻기 위해 자체 주조시설을 설립하였다.

순수한 골드에서 시계가 되기까지

롤렉스가 주조하는 골드는 고유한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가장 순도 높은 금속을 사용해 사내 연구소에서 첨단 장비를 통해 철저하고 세심한 검사 과정을 거쳐 탄생되기 때문이다. 이 금속들은 엄격히 관리되는 롤렉스만의 노하우를 따라 1,000°C 이상의 고온 용광로에서 융합 과정을 거쳐 합금 처리된다. 이를 통해 롤렉스 고유의 18캐럿 옐로우, 화이트, 에버로즈 골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용융된 합금을 흑연체로 거르면 작은 방울이 형성된다. 이를 차가운 물로 떨어뜨리면 즉시 냉각되어 작은 비즈로 재탄생된다.

18캐럿 골드 비즈는 2차 용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합금을 연속 주조 과정을 통해 수냉식 금형 안에 부으면 막대 모양으로 변형되며 굳어진다. 이렇게 탄생한 골드 막대를 미들 케이스, 케이스 백, 베젤,브레슬릿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판, 관, 막대, 가는 끈의 형태 등으로 만들기 위해 금속 성형

워크샵에서 압연, 드로잉, 가열 냉각을 통한 성형, 압축, 연장 과정을 진행한다. 용융 공정과 마찬가지로, 이 단계 역시 제품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차후의 공정에 필요한 최고의 기능적, 심미적 특성을 골드에 부여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폴리싱 또는 새틴 마감과 같은 최종 공정을 거친 부품들은 롤렉스 골드 특유의 아름다운 광택을 자랑한다.

에버로즈 골드

핑크 골드 시계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롤렉스는 자체 주조 시설에서 에버로즈 골드라는 독특한 컬러의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했다. 유일무이한 핑크 톤이 특징인 에버로즈 골드는 2005년에 도입되어 모든 롤렉스 핑크 골드 시계에 사용되고 있다.

롤레조, 골드와 스틸의 만남

대조적인 색감과 광채를 지닌 골드와 스틸을 하나의 시계 위에 아름답게 결합시킨 롤레조 Rolesor 는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롤렉스가 1933 년에 특허를 획득한 롤레조는 롤렉스만의 상징적인 특징이다. 롤레조의 컨셉은 아주 간단하다. 18 캐럿 옐로우 골드 또는 에버로즈 골드는 베젤, 크라운과 브레슬릿의 가운데 링크에, 오이스터스틸은 케이스와 브레슬릿의 바깥쪽 링크에 사용된다. 화이트 롤레조의 경우는 베젤만 18 캐럿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진다.

롤레조는 1948 년 Oyster Perpetual Datejust 에 처음으로 사용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클래식한 손목시계로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이후로 롤레조는 오이스터 프로페셔널과 클래식 모델의 다른 시계에도 확대되어 사용되었다.